

## 재미없어? 냉장고엔 잼이 있어!

- 한국문화, 한일교류 주제 에세이와 정형시, 한글캘리 작품 4,500여점 모여
- 수상작 72점 한글날 기념전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일우호교류의 마음을 전하는 ‘한일교류 작문콘테스트 2024’와 ‘한글캘리그래피 공모전 2024’를 개최, 일본 전국 각지에서 총 4,539건의 작품이 모여 한일우호와 한국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응모 작품 가운데는 단골소재인 K-POP과 아이돌, 한국관광, 한국요리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시와 소설, 가족, 조선통신사, 유교문화 등 다양한 소재와 경험담이 눈에 띄었다.

4월부터 여름방학까지 약 4개월간 모집한 ‘한일교류 작문콘테스트 2024’는 ▲독학으로 4년간 공부한 한국어를 홈스테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보람과 한국어공부를 ‘보물찾기’에 빗대 소개한 고등학생의 이야기 (言葉の宝探し/말의 보물찾기 / 일본어 에세이 중고생부문 최우수상: 야마구치 호노카, 17세), ▲한일 역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대마도와 부산에서 느낀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교류와 친절한 경찰아저씨와 학생들과의 경험담을 소개한 한 작품 (国境を渡って気が付いたこと 국경을 넘어서 느낀 점 / 일본어 에세이 중고생부문 우수상: 이시다 아카리, 14세), ▲아재개그로 배운 한국어를 통해 생긴 자신감으로 시낭송, TOPIK, 야구직관 등에 도전해나가는 교토국제고교 학생의 이야기 (재미없어? 냉장고엔 잼이[재미]있어! / 한국어 에세이 중고생부문 우수상: 이나가키 이쿠나, 16세), ▲생일기념으로 친구와 함께 방문한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얻은 용기와 자신감, 감동을 에세이로 표현한 작품 (자신감으로 이

어진 생일여행 / 한국어 에세이 일반부문 최우수상: 야마기와 타카코, 43세), ▲첫 한국 출장에서 경험한 꿀물과 꿀맛의 차이점과 행복에 대해 재치 있게 풀어낸 회사원의 작품 (꿀맛이란 어떤 맛인가? / 한국어 에세이 일반부문 우수상: 후지와라 료스케 30세) 등 다양한 한국문화와 한일우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추억을 저마다의 신선한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 4,007 점이 모였다.

또한 올해 4회째를 맞이한 ‘한글캘리그래피 공모전 2024’에는 ▲꿈이라는 글자에 알록달록한 토끼풍선을 조합한 초등학생의 작품 「꿈」(최우수상: 나이토 치에리, 10세),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을 현대어로 표현한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씬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최우수상: 다마다 마키, 40세) 등 좋아하는 단어, 바람, 글귀를 붓, 펜, 일러스트 등으로 개성 넘치게 표현한 한글캘리그래피 작품 532점이 모여 다양한 연령층의 한글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문화원 공형식 원장은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 느낀 한국에 대한 이야기에 기쁨과 애정이 녹아있어 감동이 그대로 전해졌다. 특히, 한류팬인 가족들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젊은 세대까지 이제는 한일우호교류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고, 한글날 기념 전시를 통해 이 감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담당자	행사 민병욱 (03) 3357-5970 홍보 조은경 (03) 3357-5972
-------	---------	-----	--



한일교류 작문콘테스트 2024 포스터



한글 캘리그래피 공모전 2024 포스터



작문&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전시 2023년



작문&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전시 2023년



작문&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전시 2022년



작문&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전시 2022년